

8월 Market Index	
↓ 코스피 7246.79 (-409.52)	↓ 코스닥 785.00 (-46.23)
↓ 금리 (연이자율) 3.775 (-0.005)	↓ 환율 (원/달러) 1503.40 (-24.80)

metro® 경제

호남 반도체 시대
수도권 밖
생산거점 첫발
03



이재명 대통령, 튀르키예 환영 만찬 참석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7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튀르키예 레제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부인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튀르키예 대통령실

‘임단협 난항’ 완성차, 파업 초읽기

현대차 노조, 기본급 등 인상 요구 ‘특근거부’ 시작, 압박수위 높아
기아 노조, 오늘 총력투쟁 선포식
한국GM도 파업 가능성 높아져

국내 완성차 업계의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 교섭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특근 거부에 돌입한 데 이어 기아 노조는 총력투쟁을 예고했고, 한국GM 노조도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 하면서 하반기 노사 갈등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각사 노조는 임금 인상과 성과급 확대를 공통 요구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회사 측은 경영 불확실성과 수익성 둔화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울산 공장 본관에서 집중교섭을 이어가며 임단

협타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합의안을 도출 하지 못하고 있다. 시측은 기본급 8만4000 원 인상, 성과급 350%에 더해 950만원 지급, 자사주 12주 지급 등을 담은 제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인상, 정년 연장, 신규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안정 방안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노조는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로 특근 거부를 시작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15차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기아 노조는 9일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고 교섭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기아 노조는 영업이의

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대차 노조가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과 비교해 강한 수준의 성과 배분 요구다. 이외에도 정년 연장, 주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공장의 대형 버스 생산 중단에 따른 고용 안정과 미래 생산 물량 확보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GM도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으며, 앞선 파업 찬반투표에서도 86.5%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조합원 1인당 약 3000만원의 성과급 지급, 주4.5일제 도입, 미래차 생산 물량의 국내 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양성원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이달 중 ‘원화 국제화’ 로드맵 확정”

구윤철 부총리, 시장상황점검회의 수출 역대최대... 경기흐름 ‘양호’



가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기 흐름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글로벌 정책금리 인상 기대 및 외국인 자금유출 지속 등으로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정학적 긴장 재고조 가능성을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코스피의 급등 이후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차익 실현, 포트폴리오 재조정,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 전망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6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

정부가 이달 중 ‘원화의 국제화’ 방안을 내놓는다. 또 서울외환시장 24시간 가동을 계기로, 원화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야간시장 점검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외환시장 24시간 거래체제의 인착을 위해 7월 중에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확정하기로 했다. 경기 흐름 관련해서는 수출과 경상수지

메트로신문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오늘 오후 2시~5시,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관람기사 L8면)

SK하이닉스 ADR 공모 ‘몇 배’ 초과 청약

기관투자자 1000곳 투자설명회 참여
투자사 3곳 최대 70억달러 매수 의향
UBS “ADR 매수, 韓 주식 매도 권고”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공모가 ‘몇 배’ (multiple times) 초과 청약된 것으로 전해졌다. ADR상장을 앞두고 몇몇 외국계 투자은행(IB)은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매수하고 한국 상장 주식은 매도하라고 투자자들에게 권고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안정적, 장기적 성장의 대형 기관투자

자와 기술주 전문 투자자들의 수요가 초기부터 강했으며 6일 열린 투자설명회에는 기관투자자 약 1000곳이 참여했다. 공모가는 뉴욕시간 기준 9일 오후 결정된다.

시추에이셔널 어웨어니스 파트너스, 베일리 기포드, 코튜메니지먼트 등 대형 투자사 3곳이 이번 공모에서 최대 70억달러를 매수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상태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투자회사 화이트옥스 캐피털의 노리 치우 투자 담당 이사는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주식, 특히 메모리 반도체 종목은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남아 있다”며 “이 같은 희소 가치가 수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거래는 최근 몇 년 새 가장 격렬한 수준의 글로벌 반도체주 변동성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게 변수로 꼽힌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투자은행 UBS그룹은 고객 노트에서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매수하고 한국 상장 주식은 매도하라고 투자자들에게 권고했다. (2면에 계속)

/허정원 기자 zelkova@metro

AI로 더 쉽게! 더 빠르게!

경기도 이주민 포털!

다국어 지원
언어 걱정 없이 편리하게!

다양한 정보 제공
이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커뮤니티
취업, 맛집, 유머 등 다양한 주제로 소통!

24시간 상담
전문 상담사와 AI챗봇으로 실시간 연결!